

KERI 경제동향과 전망

최근 경제동향
국내 경제전망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1년 2분기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이 승 석 부 연 구 위 원

감 수

조 경 엽 경제연구실 실장

〈차례〉

| | |
|---------------------------|----|
| 요약 | v |
| 제I장 최근 경제동향 | 1 |
| 1. 경제성장 | 3 |
|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10 |
| 3. 고용 | 15 |
| 4. 물가 | 18 |
| 5. 금리와 환율 | 23 |
|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 27 |
| 1. 대외 여건 | 29 |
| 2. 2021년 국내 경제전망 | 32 |

〈 표 차례 〉

| | |
|------------------------------------|----|
|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 9 |
|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 30 |
|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 31 |
|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 32 |
|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 32 |
| 〈표 II-5〉 2021 국내경제전망 | 50 |

〈그림 차례〉

| | |
|--------------------------------------|----|
|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 3 |
| 〈그림 I-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 4 |
|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 6 |
| 〈그림 I-4〉 산업생산 | 8 |
| 〈그림 I-5〉 경기종합지수 | 9 |
| 〈그림 I-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 11 |
| 〈그림 I-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 11 |
| 〈그림 I-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 11 |
| 〈그림 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 12 |
|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 13 |
|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 14 |
|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 15 |
| 〈그림 I-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 16 |
| 〈그림 I-14〉 고용률 | 17 |
| 〈그림 I-15〉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0.4 →2021.4) | 17 |
| 〈그림 I-16〉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 19 |
| 〈그림 I-17〉 품목성질별 증가율 | 19 |
| 〈그림 I-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 20 |
| 〈그림 I-19〉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 21 |
| 〈그림 I-20〉 아파트전세가격 | 21 |
| 〈그림 I-22〉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 23 |
| 〈그림 I-23〉 원/달러, 원/100엔 | 24 |
|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 31 |
|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 33 |
|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 34 |
|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 35 |
|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 36 |
|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 36 |
|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 37 |
| 〈그림 II-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 38 |
| 〈그림 II-9〉 업황전망 | 38 |
|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 39 |

| | |
|---|----|
|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 40 |
|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 41 |
|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EBSI) | 42 |
|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 43 |
|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 45 |
|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 46 |
|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 47 |
|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 48 |
| 〈그림 II-19〉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 49 |

요약

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성장 흐름에 강력한 견인력을 발휘하며 3.8%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는 성장률 기록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2.4%의 역(逆)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은 주요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적극적인 백신보급의 영향으로 교역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며 올해는 수출성장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반도체 단가상승, 국제유가 회복 등 교역여건이 개선되고, 바이오헬스 같은 비주력 품목을 비롯해 전품목의 수출이 균형감 있게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수출 성장률이 9.6%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도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등 IT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친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상승흐름이 이어지면서 설비투자는 9.0%의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건설투자는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역(逆)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여전히 산재해 있는 건축규제 및 공공재건축에 대한 반발기조로 건설투자 회복은 하반기에야 이르러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장기간 진행되어 온 가계 소득기반 약화,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와 더딘 백신보급의 영향으로 2.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를 기록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유가의 회복, 그리고 집세 등 거주비 상승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며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美연준의 양적완화 기조 지속에 대한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불식되지 않는 테이퍼링 우려, 美인플레이션 가능성 확대 및 예상치를 웃도는 美경기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상당기간 강세기조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위안화의 절상, 국내 경기회복세 확대가 달러화 강세 흐름을 제약하며 원·달러환율은 1,13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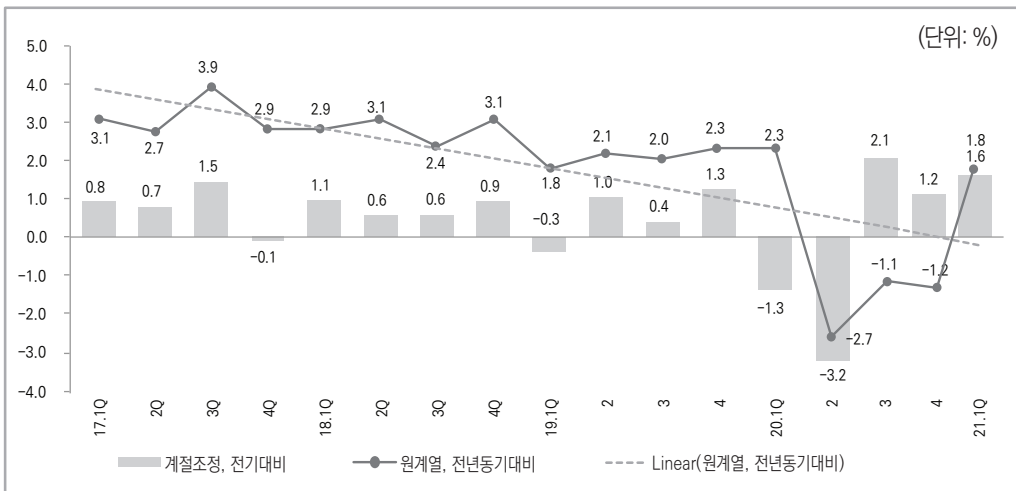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 환율

1. 경제성장

- '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 ('21년 1/4분기, 전년동기비 1.8%, 전기대비 1.6%)
- 1/4분기 중 전기대비 성장률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역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전기비: -0.3%(2019.1/4) → 1.0%(2019.2/4) → 0.4%(2019.3/4) → 1.3%(2019.4/4) → -1.3%(2020.1/4) → -3.2%(2020.2/4) → 2.1%(2020.3/4) → 1.2%(2020.4/4) → 1.6%(2021.1/4)
 - 동기비: 1.8%(2019.1/4) → 2.1%(2019.2/4) → 2.0%(2019.3/4) → 2.3%(2019.4/4) → 2.3%(2020.1/4) → -2.7%(2020.2/4) → -1.1%(2020.3/4) → -1.2%(2020.4/4) → 1.8%(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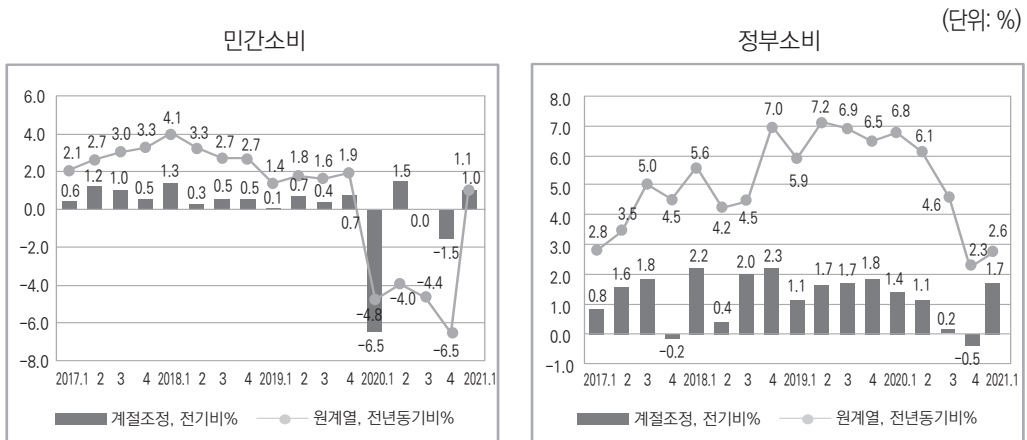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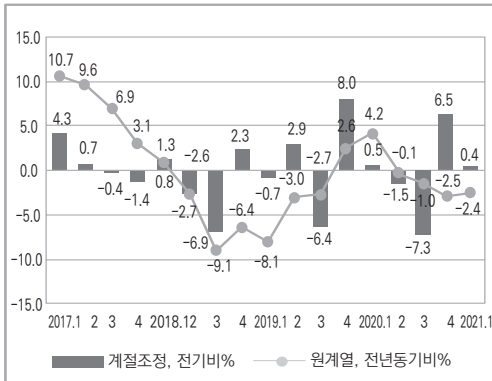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최종수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과 수출은 대외수요의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개선 및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
-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확장기조의 영향으로 증가세 지속
-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 지속
-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기록
- 수출은 글로벌 교역회복에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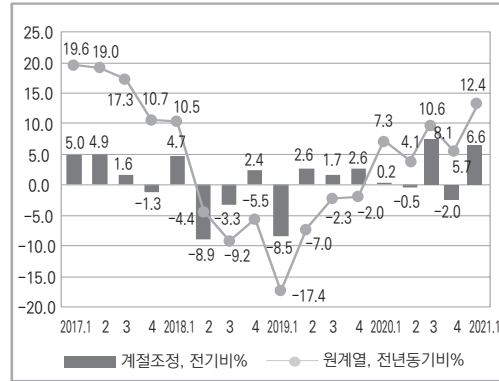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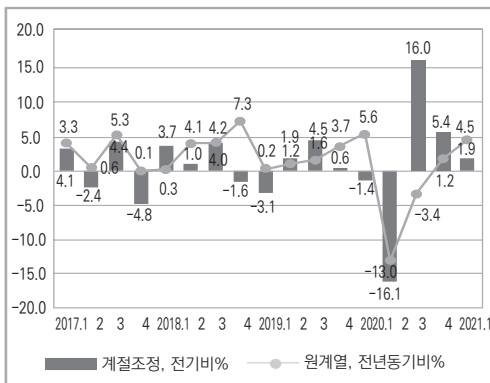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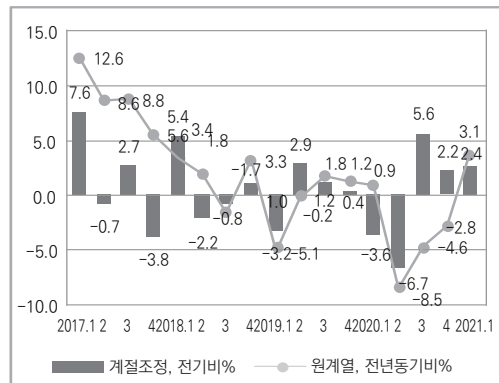
설비투자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 (기여도)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의 기여도가 확대

○ 내수(총소비+총투자): -0.4%(2019.1/4) → 1.3%(2019.2/4) → -1.0%(2019.3/4) → 1.4%(2019.4/4) → -2.0%(2020.1/4) → 0.9%(2020.2/4) → -1.7%(2020.3/4) → -0.3%(2020.4/4) → 1.8%(2021.1/4)

* 총소비: 0.1%(2019.1/4) → 0.7%(2019.2/4) → 0.3%(2019.3/4) → 0.9%(2019.4/4) → -2.9%(2020.1/4) → 0.9%(2020.2/4) → 0.0%(2020.3/4) → -0.8%(2020.4/4) → 0.8%(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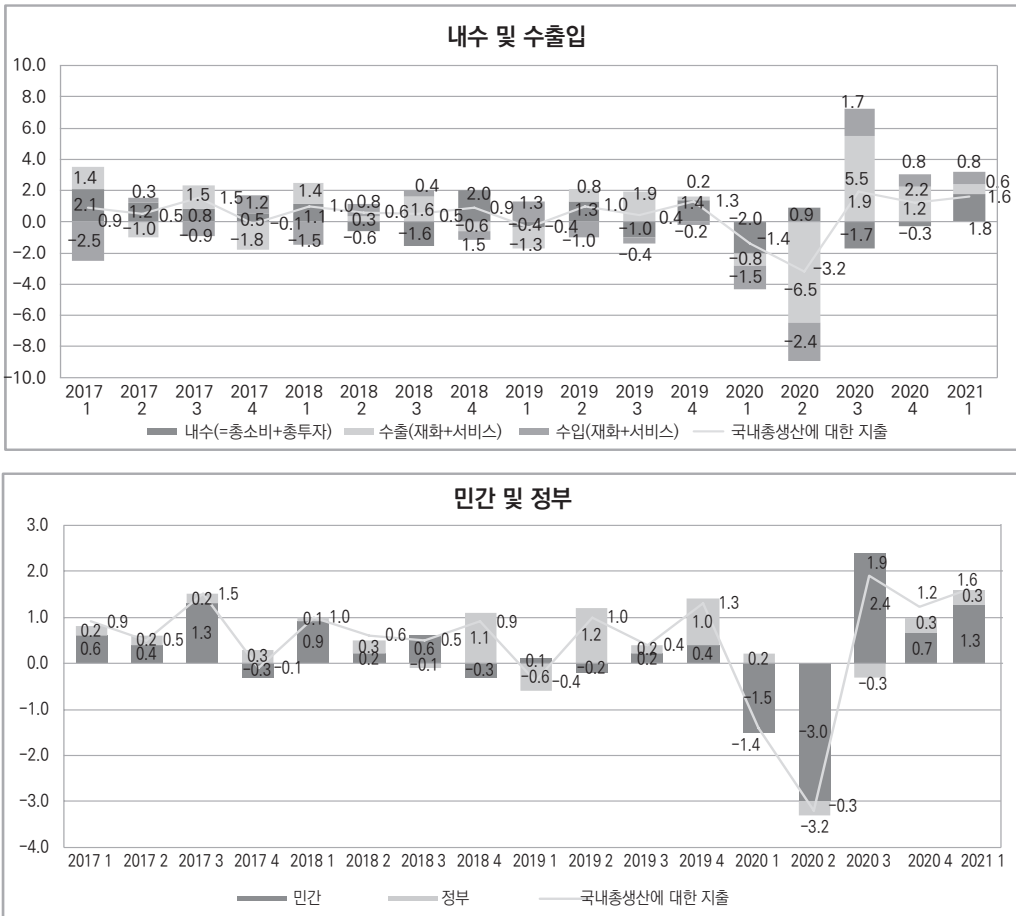
* 총투자: -0.5%(2019.1/4) → 0.6%(2019.2/4) → -1.3%(2019.3/4) → 0.5%(2019.4/4) → 0.9%(2020.1/4) → 0.0%(2020.2/4) → -1.7%

- (2020.3/4) → 0.5%(2020.4/4) → 1.0%(2021.1/4)
- 순수출: -0.1%(2019.1/4) → -0.3%(2019.2/4) → 1.4%(2019.3/4) → 0.1%(2019.4/4) → 0.7%(2020.1/4) → -4.1%(2020.2/4) → 3.7% (2020.3/4) → 1.4%(2020.4/4) → -0.2%(2021.1/4)

○ 민간부분의 기여도는 1.3%로 전분기(0.7%)에 비해 확대, 정부부분 기여도는 0.3%로 지난 분기 수준 유지

〈그림 1-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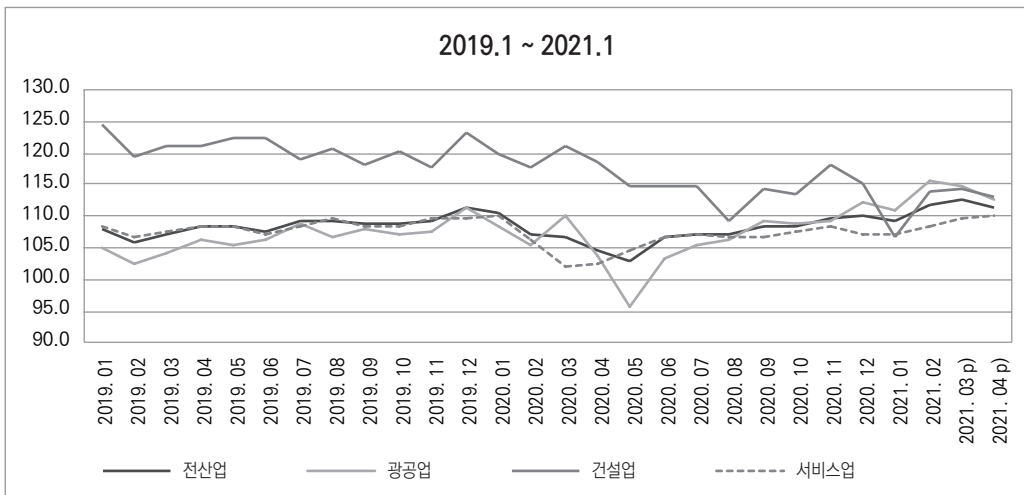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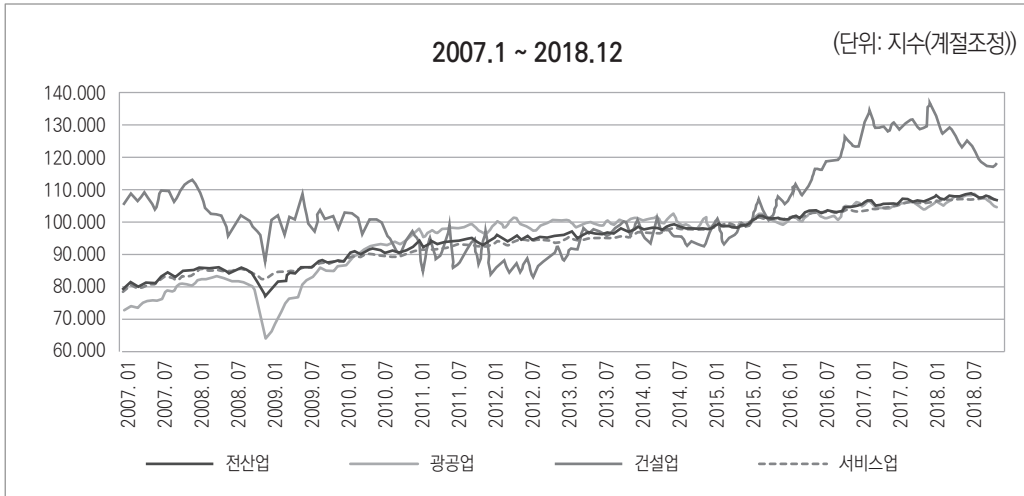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4월 산업생산. 대내외 수요회복에 힘입어 회복세 지속.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서비스업의 개선세 확대
- (생산) 광공업은 반도체,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코로나 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서비스업이 금융·보험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
- 전체산업생산: (동기비) 1.6%(2020.1/4) → -3.4%(2020.2/4) → -0.5%(2020.3/4) → -1.5%(2020.4/4) → 1.5%(2021.1월) → 0.4%(2021.2월) → 5.7%(2021.3월) → 8.8%(2021.4월)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30.0%), 기계장비(16.6%) 등 내구재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 지속
 - * 전체 제조업: (동기비) -0.6%(2020.1/4) → -7.0%(2020.2/4) → 4.7%(2020.3/4) → -0.1%(2020.4/4) → 7.7%(2021.1월) → 0.9%(2021.2월) → 4.5%(2021.3월) → 13.0%(2021.4월)
 -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도소매(9.3%), 숙박음식업(8.3%) 등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8.4% 증가
 - * 전체 서비스업: (동기비) -1.1%(2020.1/4) → -3.4%(2020.2/4) → -1.7%(2020.3/4) → -2.0%(2020.4/4) → -1.8%(2021.1월) → 0.8%(2021.2월) → 7.8%(2021.3월) → 8.4%(2021.4월)
- (소비)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판매가 모두 늘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
- 전체소매판매: (동기비) -2.9%(2020.1/4) → 1.9%(2020.2/4) → 1.8%(2020.3/4) → -1.2%(2020.4/4) → 0.0%(2021.1월) → 8.2%(2021.2월) → 10.9%(2021.3월) → 8.6%(2021.4월)
- (투자)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에 힘입어 기계류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 지속
- 설비투자: (동기비) 7.0%(2020.1/4) → 6.3%(2020.2/4) → -0.5%(2020.3/4) → 2.9%(2020.4/4) → 19.6%(2021.1월) → 7.1%(2021.2월) → 9.5%(2021.3월) → 16.8%(2021.4월)

- 건설투자: (동기비) 0.3%(2020.1/4) → -4.1%(2020.2/4) → -1.6%(2020.3/4) → -5.3%(2020.4/4) → -8.1%(2021.1월) -8.3%(2021.2월) → -5.7%(2021.3월) → -1.8%(2021.4월)

〈그림 1-4〉 산업생산



자료: 통계청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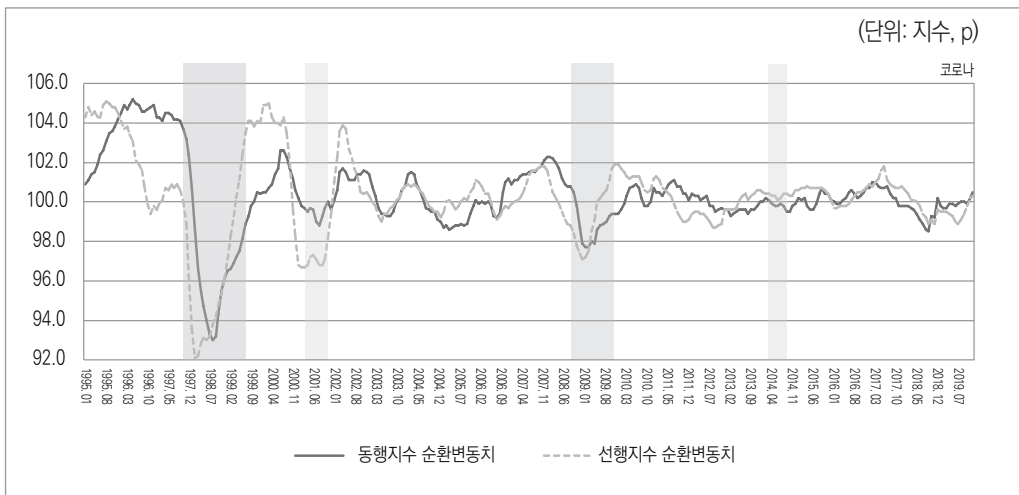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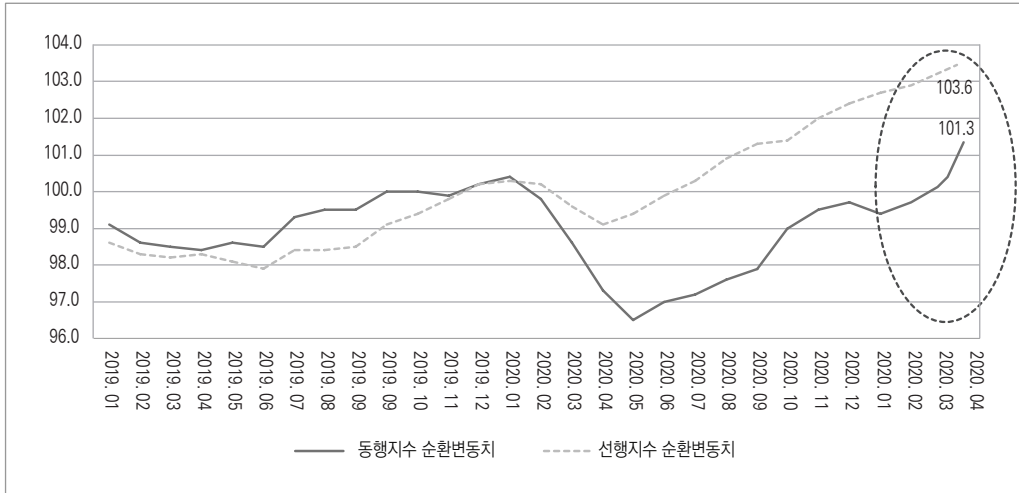
| | | 2019년 | 2020년 | | 2021년 | | |
|----|-------|-------|-------|------|-------|------|------|
| | | 연간 | 연간 | 1/4 | 4월 | 1/4 | 4월p) |
| 생산 | 전산업 | 1.0 | -1.2 | 1.4 | -5.4 | 2.7 | 8.8 |
| | 제조업 | 0.5 | -0.3 | 5.0 | -5.3 | 4.4 | 13.0 |
| | 서비스업 | 1.4 | -2.0 | -1.0 | -6.1 | 2.2 | 8.4 |
| | 평균가동률 | 73.2 | 71.3 | 73.0 | 68.9 | 75.1 | 73.8 |
| 소비 | 소매판매 | 2.4 | -0.2 | -2.9 | -2.2 | 6.3 | 8.6 |
| 투자 | 설비투자 | -5.7 | 6.0 | 8.1 | 1.8 | 11.9 | 16.8 |
| | 건설기성 | -2.3 | -4.1 | -0.8 | -4.5 | -7.2 | -1.8 |

자료: 통계청

-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103.6과 101.3를 기록하며 점진적인 회복세 시현

〈그림 I-5〉 경기종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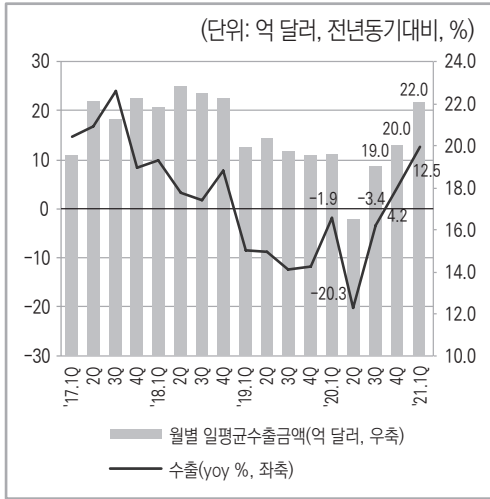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무역수지 흑자 2021년 1분기 103.9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9억 달러 증가(전기대비 80.8억 달러 감소)
- 2021년 1/4분기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회복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제품까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양호한 증가세 시현
- 수입 역시 소비재·중간재·자본재 모두 고르게 증가하며 큰 폭 증가
- 2021년 1/4분기 무역수지 흑자 103.9억 달러로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분기 대비 흑자폭은 감소
 - 수출은 1,4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
 - 수입은 1,3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
 - * 2021년 4월 수출 511.9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1.1% 증가, 역대 4월 최고치), 수입 508.0억 달러(전년동기대비 33.9%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3.9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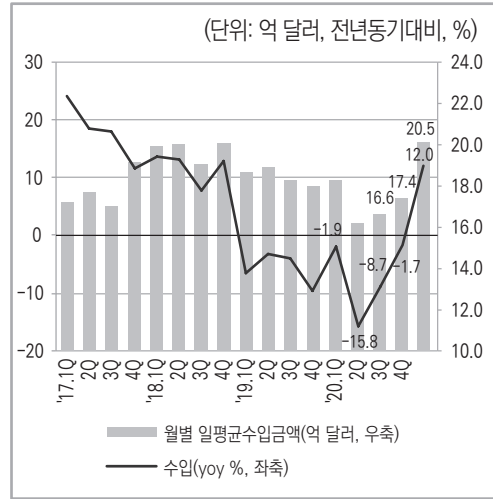
* 2021년 5월 수출 507.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45.6% 증가, 역대 5월 최고치), 수입 478.1억 달러(전년동기대비 37.9%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29.3억 달러 기록

〈그림 1-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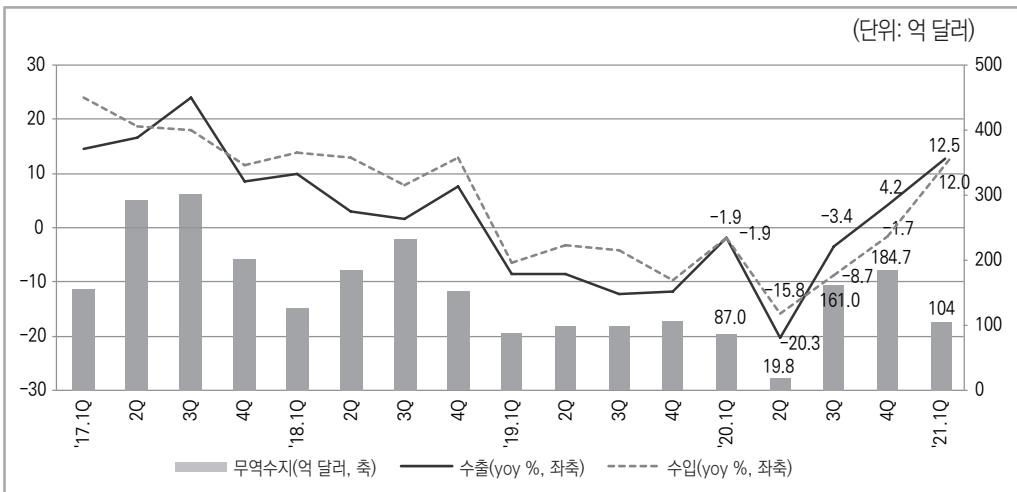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그림 1-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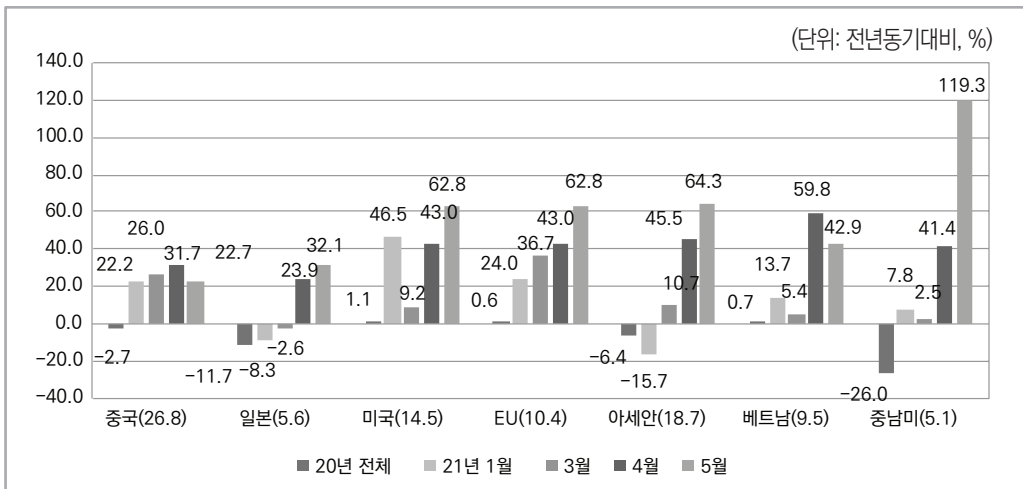
〈그림 1-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지역별 수출)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및 각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부양 노력에 힘입어 지역별 수출은 4대 시장(미국, 중국, EU,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모두 30% 이상 증가
 - 미국: 백신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미수출이 신속하게 회복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자동차, 가전, 일반기계
 - 중국: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빠르게 개선되며 대중수출 증가
 - * 주요 수출증가품목: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 유로: 코로나19 선박, 바이오헬스 수출에 힘입어 對EU 수출액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선박, 차부품, 석유화학
 - 일본: 올림픽 관람객 유치 여부 불분명, 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확진세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출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증가의 영향으로 플러스로 전환
 - * 주요 수출증가품목: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그림 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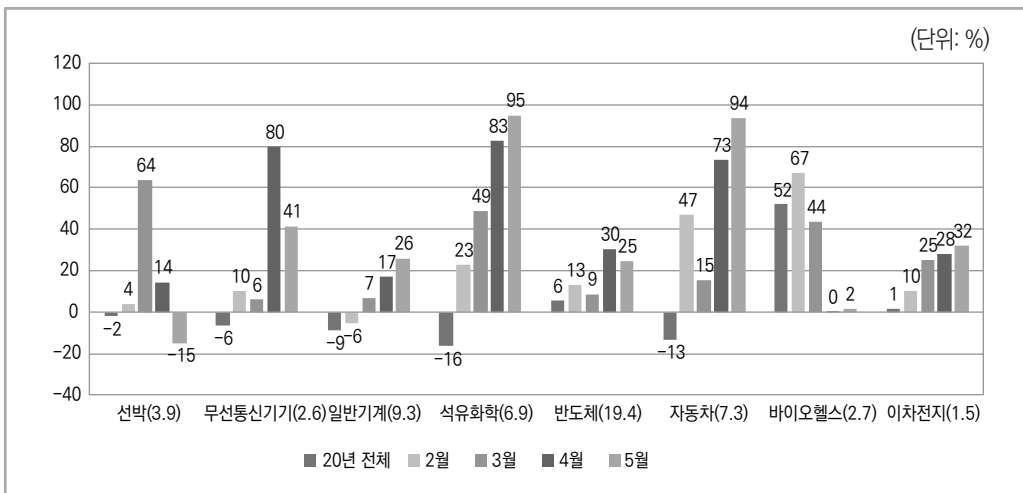


주: () 내 수치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품목별 수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품목이 기록적 실적을 보인 가운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들 역시 상승세 지속
 - 반도체: 대형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서버투자가 확대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부족 장기화로 인한 단가상승 압력까지 가해지면서 반도체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등 하방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및 SUV차량 수요증가 및 단가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EU 등 주요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 일반기계: 주요국의 투자 재개에 따라 건설기계류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IT 관련 기계류 역시 수출 호황
 - 석유제품: 국내 증설설비 가동,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실적 기록
 - 바이오헬스: 진단키트 수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세 지속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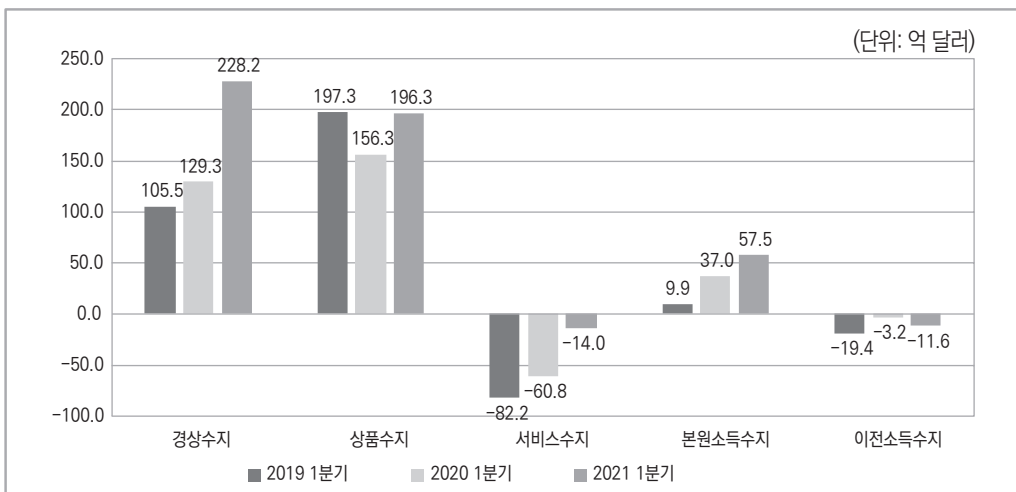
주: ()내 수치는 2020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1년 1/4분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와 서비스수지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며 228.2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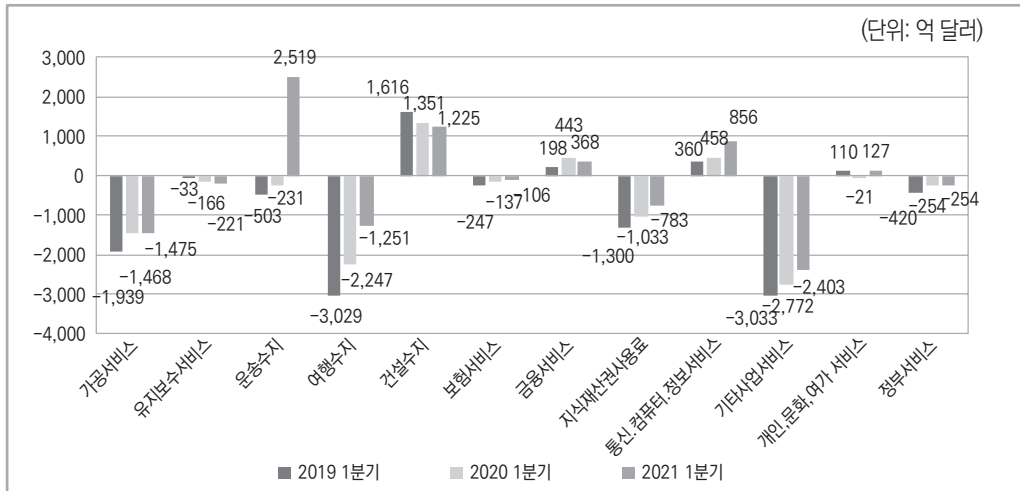
- 상품수지가 양호한 흑자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상수지는 228.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반도체를 비롯한 IT품목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 기록
 -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의 적자감소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46.8억 달러 감소한 14억 달러
 - 본원소득수지 배당소득 증가에 기인하여 흑자 확대(+20.5억 달러)
 - 이전소득수지 해외송금 증가의 영향으로 적자 확대(-8.4억 달러)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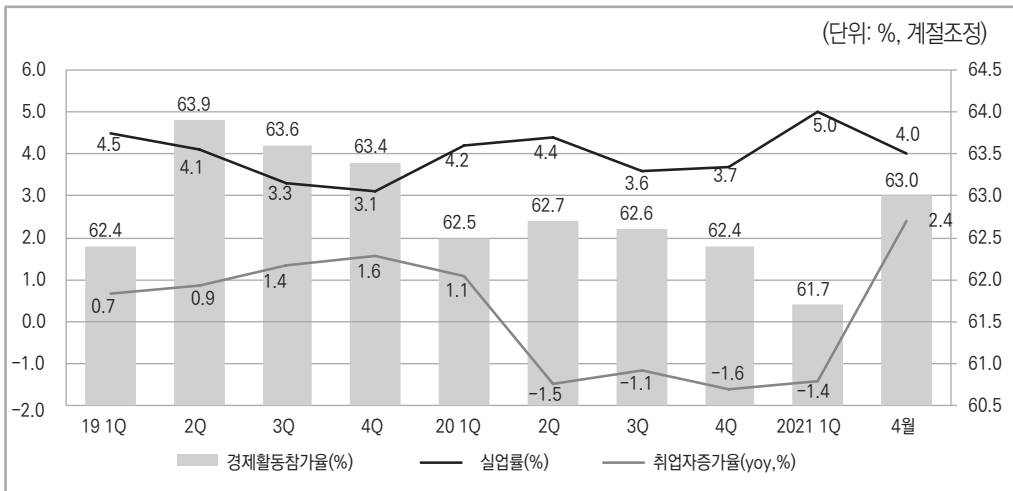
3. 고용

□ 고용시장. 2021년 4월 기준, 취업자 2,721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65만 명 증가. 고용률 60.4%, 실업률은 4.0% 기록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0.4%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
 - 고용률(%): 60.0(2020.1) → 60.0(2020.2) → 59.5(2020.3) → 59.4(2020.4) → 60.2(2020.5) → 60.4(2020.6) → 60.5(2020.7) → 60.4(2020.8) → 60.3(2020.9) → 60.4(2020.10) → 60.7(2020.11) → 59.1(2020.12) → 57.4(2021.1) → 58.6(2021.2) → 59.8(2021.3) → 60.4(2021.4)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4.0%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
 - 실업률(%): 4.1(2020.1) → 4.1(2020.2) → 4.2(2020.3) → 4.2(2020.4) → 4.5(2020.5) → 4.3(2020.6) → 4.0(2020.7) → 3.1(2020.8) → 3.6(2020.9) → 3.7(2020.10) → 3.4(2020.11) → 4.1(2020.12) → 5.7(2021.1) → 4.9(2021.2) → 4.3(2021.3) → 4.0(2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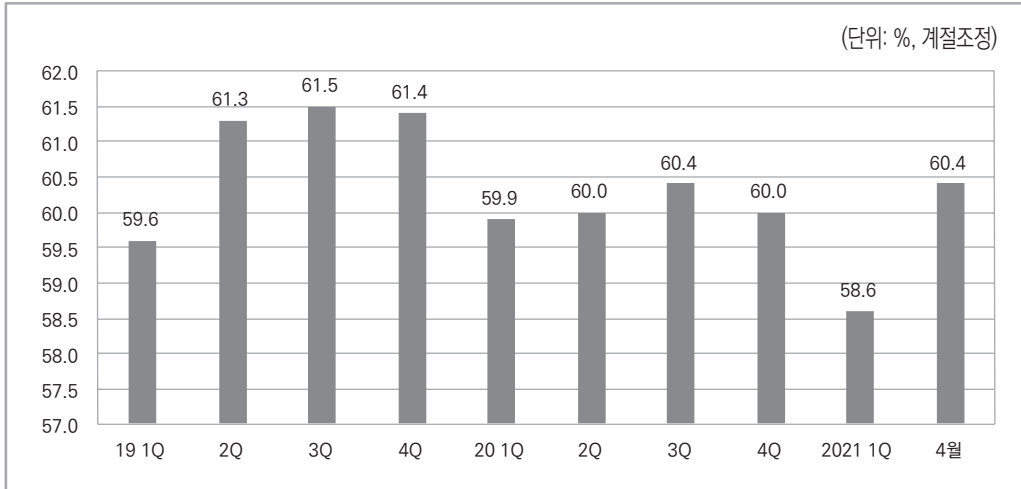
-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5만 명 증가한 2,721만 명 기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
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및 30~40대의 감소세는 지속. 다만, 제조업의 취
업자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주목할 점
 - 산업별로는 보건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5만), 건설업(+14.1만), 제조업(+9천)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 받은 도소매업(-18.4만)
등은 감소세 지속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46.9만 명 20대에서 13.2만 명 늘어난 반면,
30대(-9.8만 명)와 40대(-1.2만 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31.1만 명, 일용 및 임시근로자는 각각 3.8만
명, 37.9만 명 증가

〈그림 1-13〉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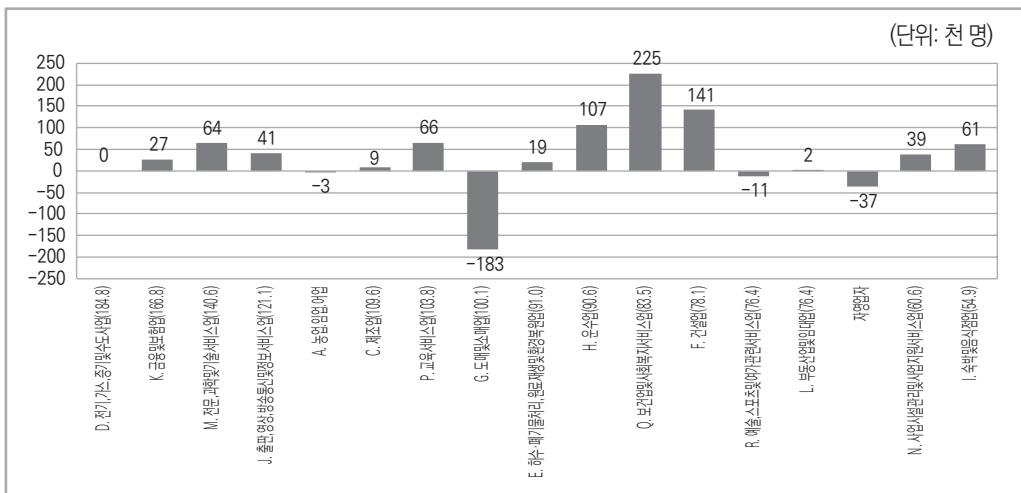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4〉 고용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5〉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0.4 → 2021.4)



주: ()내 수치는 2020년 산업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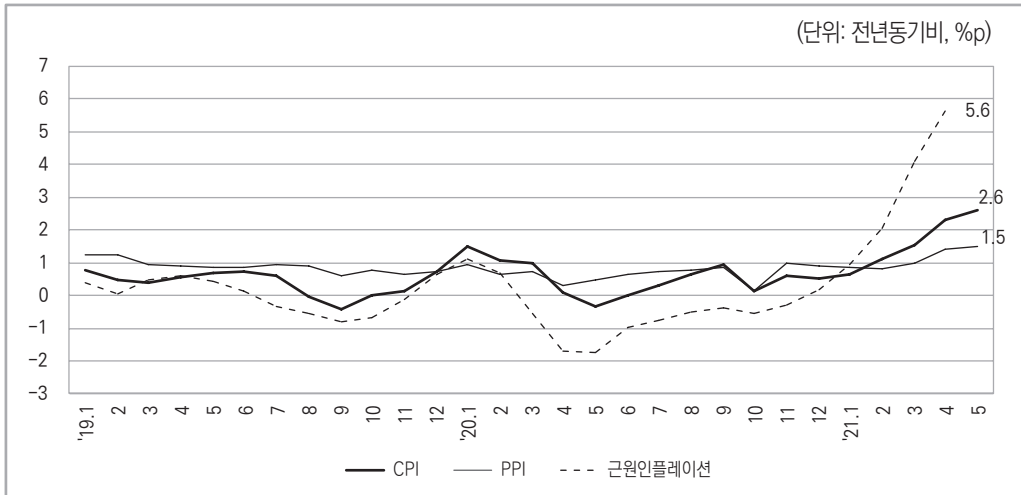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4. 물가

-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상승에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동반 상승
- 대외요인으로는 배럴당 60달러 중반 수준에 이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미국의 가파른 경기회복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¹⁾이 국내 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대내요인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압력 개선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2% 중반 수준을 초과
- 임대차3법에 따른 집세상승 역시 물가 상승폭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
-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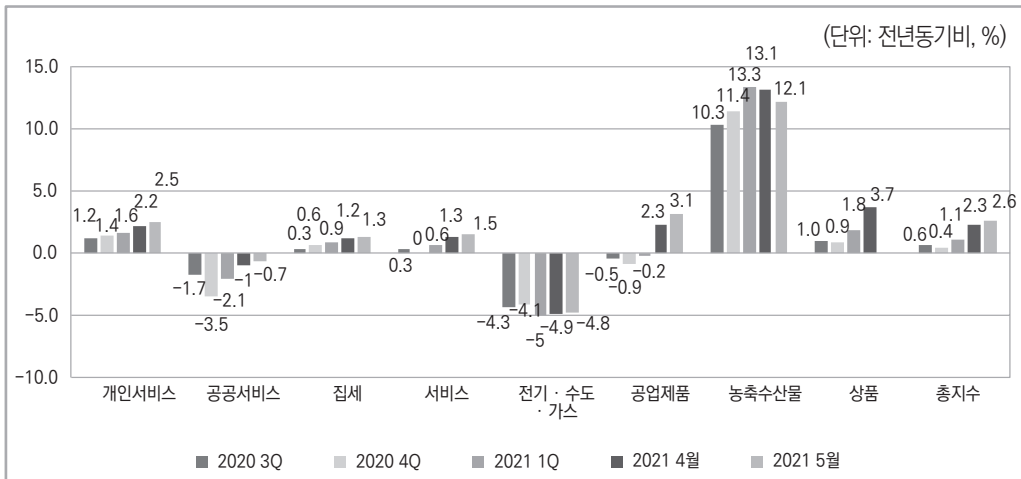
1) 달러화는 1분기 강세 후 5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며 약세로 전환

〈그림 I-16〉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7〉 품목성질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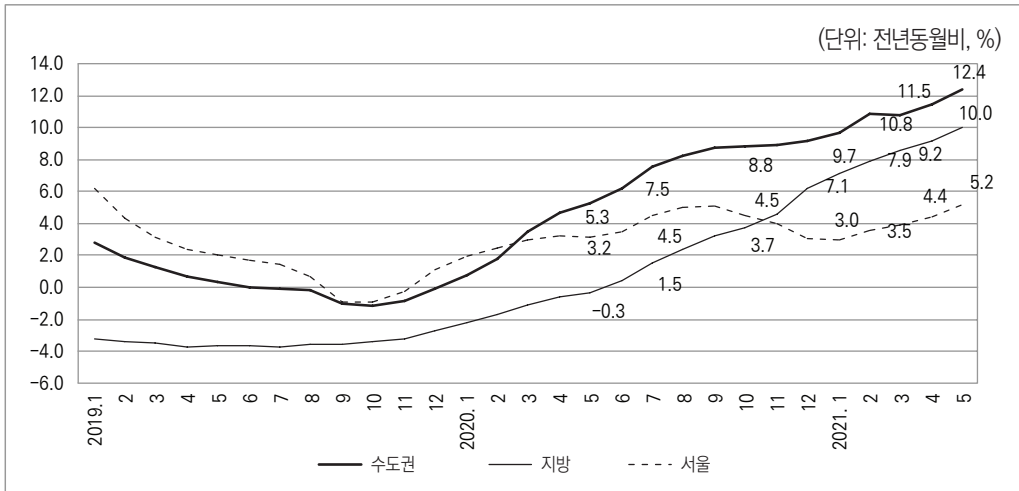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양도세 증가 시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매물잠김 계속되며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전세가격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가파른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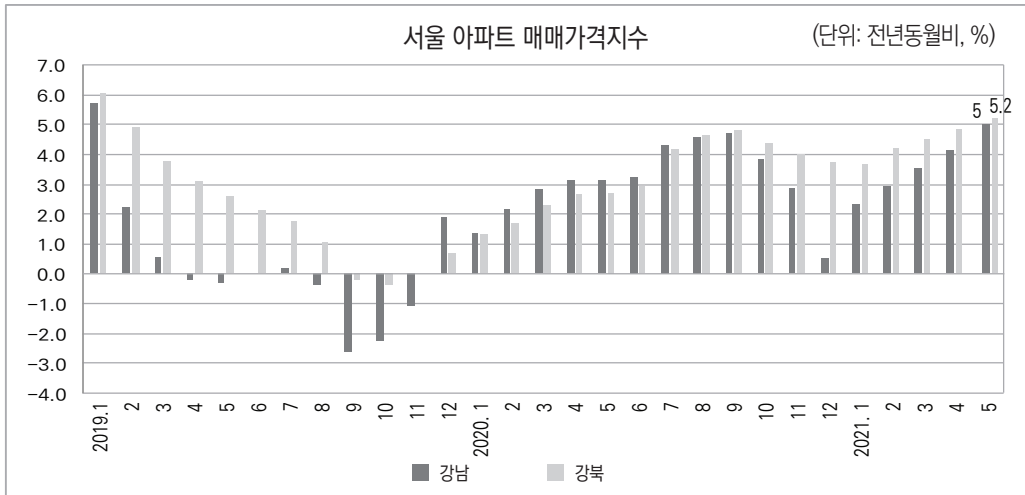
- 아파트(수도권) 매매가격 증가율: 0.8%(2020.1월) → 1.7%(2020.2월) → 3.5%(2020.3월) → 4.7%(2020.4월) → 5.3%(2020.5월) → 6.2%(2020.6월) → 7.5%(2020.7월) → 8.2%(2020.8월) → 8.7%(2020.9월) → 8.8%(2020.10월) → 8.9%(2020.11월) → 9.2%(2020.12월) → 9.7%(2021.1월) → 10.8%(2021.2월) → 10.8%(2021.3월) → 11.5%(2021.4월) → 12.4%(2021.5월)
- 저금리 상황,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상실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양도세증과 시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매물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재건축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에 대한 실질적 하락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
 - 주택(서울) 매매건수: 5,945(2021.1월) → 5,435(2021.2월) → 4,495(2021.3월) → 4,194(2021.4월)
 - 주택(서울) 증여건수: 1,026(2021.1월) → 933(2021.2월) → 2,019(2021.3월) → 1,528(2021.4월)

〈그림 I-18〉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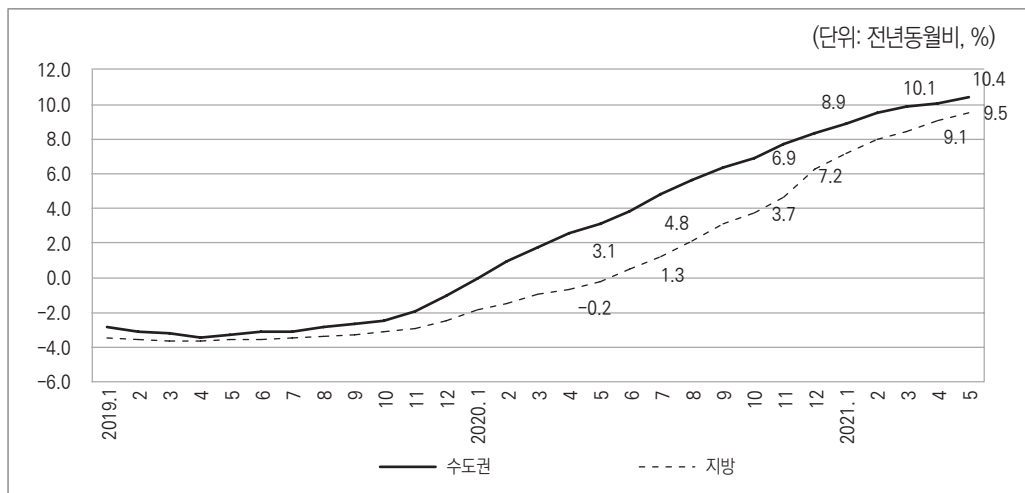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I-19〉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 I-20〉 아파트전세가격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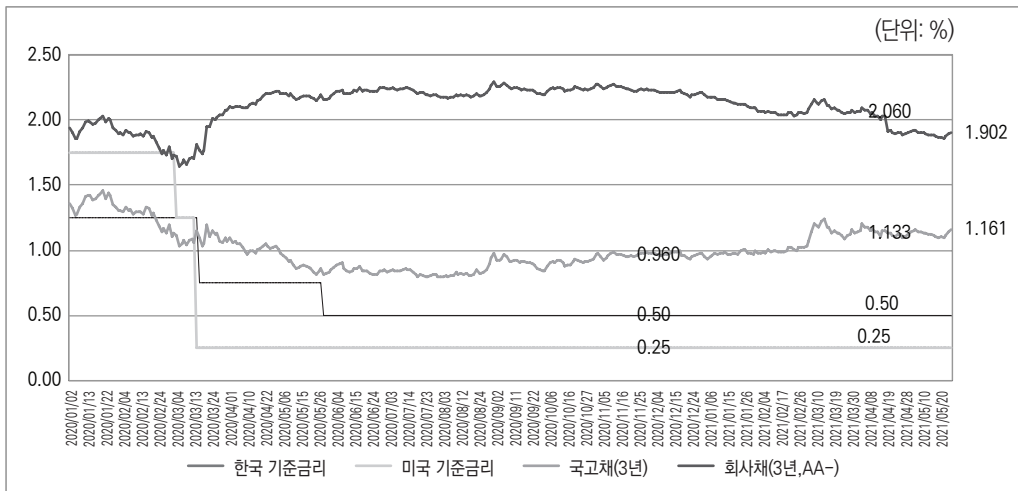
- 아파트(수도권) 전세가격 증가율: 0.0%(2020.1월) → 0.9%(2020.2월) → 1.8%(2020.3월) → 2.6%(2020.4월) → 3.1%(2020.5월) → 3.9%(2020.6월) → 4.8%(2020.7월) → 5.7%(2020.8월) → 6.4%(2020.9월) → 6.9%(2020.10월) → 7.7%(2020.11월) → 8.4%(2020.12월) → 8.9%(2021.1월) → 9.5%(2021.2월) → 9.9%(2021.3월) → 10.1%(2021.4월) → 10.4%(2021.5월)

-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0년 7월말 국회를 통과하여 8월중 급격히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으로 전세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격 폭등, 전세 대비 월세 비중 증가, 계약갱신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격화 등 사실상 전세난이 전개
 - 전세가격 상승률은 21년 4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 10.1%, 서울 6.4% 상승하며, 인기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전세가가 20억을 돌파하는 등 이른바 ‘20억 전세시대’가 기정사실화
 - 특히, 서울 일부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이주 증가가 전세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월세비중 증가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무주택 가구의 소비지출을 제약

5. 금리와 환율

-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4월 기준금리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데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5월 금리동결을 결정하면서 역사상 최저금리인 0.5%가 12개월째 지속
- 시장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소 희석되면서 국고채금리는 상승, 회사채금리는 하락하며 금리차가 좁혀지는 상황
 - 회사채(3년, AA-): 2.00%(2020.1.17) → 1.74%(2020.2.25) → 2.14%(2020.4.20) → 2.22%(2020.6.25) → 2.28%(2020.9.7) → 2.23%(2020.10.16) → 2.25%(2020.11.17) → 2.23%(2020.12.17) → 2.14%(2021.1.15) → 2.04%(2021.2.17) → 2.12%(2021.3.17) → 2.06%(2021.4.9) → 1.90%(2021.5.26)
- 다만,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심리를 반영하는 장·단기 스프레드는 아직 줄어들지 못하는 모습

〈그림 1-22〉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은 '21년 들어 美인플레이션 및 경기회복 기대감, 美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달러화 강세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30원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으나,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재확인, 미국 외 주요국들의 경기반등, 과도한 美재정적자 누적 우려 등으로 4월 이후 약세로 전환

〈그림 1-23〉 원/달러, 원/100엔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 경제성장
 - (2) 국제유가
2. 2021년 국내 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2) 경상수지
 - (3) 물가
 - (4)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 적극적인 백신보급 노력에 따라 교역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확대. 다만, 경기회복 속도는 국가간 큰 격차를 보이는 모습
- (미국) GDP의 10% 수준(약 1.9조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빠른 속도의 백신보급에 힘입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신속하게 진행 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역시 계획되어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 (중국) 미·중 무역갈등 양상의 지속 및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이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며 1/4분기중 두자리수 경제성장률 기록
- (일본) 디지털 및 환경(녹색)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기회복 까지 이루어내려는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가 재급등하면서 하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바이러스 확대로 봉쇄조치가 연장·재개되면서 경제활동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상황
- (신흥국)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한 인도 등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백신보급 지연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기개선 속도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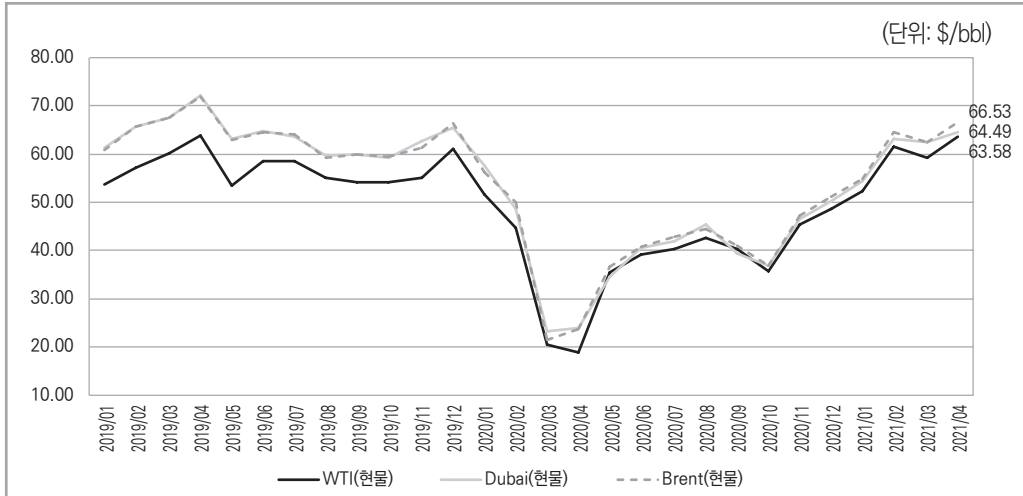
| | 실적치 | 2021. 4월 현재 전망치 | | 2021. 1월 전망치와 비교(%p) | |
|-------|------|--------------------|------|-------------------------|------|
| | | 2020 | 2021 | 2022 | 2021 |
| 세계 | -3.3 | 6.0 | 4.4 | 0.5 | 0.2 |
| 선진국 | -4.7 | 5.1 | 3.6 | 0.8 | 0.5 |
| 미국 | -3.5 | 6.4 | 3.5 | 1.3 | 1.0 |
| 영국 | -9.9 | 5.3 | 5.1 | 0.8 | 0.1 |
| 유로존 | -6.6 | 4.4 | 3.8 | 0.2 | 0.2 |
| 일본 | -4.8 | 3.3 | 2.5 | 0.2 | 0.1 |
| 신흥개도국 | -2.2 | 6.7 | 5.0 | 0.4 | 0.0 |
| 중국 | 2.3 | 8.4 | 5.6 | 0.3 | 0.0 |
| 인도 | -8.0 | 12.5 | 6.9 | 1.0 | 0.1 |
| 브라질 | -4.1 | 3.7 | 2.6 | 0.1 | 0.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 2021)

(2) 국제 유가

-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수요냉각, 달러강세, 증시하락의 복합적 영향으로 배럴당 40달러선을 밑돌던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에 힘입어 현재 배럴당 60달러 중반 수준에 이른 상황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전망)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원유수요 증대로 유가는 강세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나 美 국채금리 상승, 달러강세, OPEC+의 감산규모 축소 결정 등의 하방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는 현재의 수준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bl/d)

| 구분 | 2020 | 2021 | | | | | 2022 |
|--------------|-------|-------|-------|-------|--------|-------|--------|
| | | 1/4 | 2/4 | 3/4 | 4/4 | 평균 | 평균 |
| 수요 | 92.27 | 94.76 | 96.96 | 98.91 | 100.05 | 97.69 | 101.42 |
| 공급 | 94.24 | 92.73 | 95.54 | 98.88 | 99.61 | 96.72 | 101.38 |
| OPEC 공급(원유)* | 30.70 | 30.34 | 31.18 | 33.37 | 33.92 | 32.22 | 33.98 |
| 비OPEC 공급 | 63.54 | 62.39 | 64.36 | 65.51 | 65.69 | 64.50 | 67.40 |
| 재고변동(공급-수요) | -1.97 | 2.03 | 1.42 | 0.03 | 0.44 | 0.97 | 0.05 |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May 2021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 기관 (전망시기) | 유종 | 2020 평균 | 2021 | | | | | 2022 평균 |
|-----------------------------|-------|------------|------------------|------------------|------------------|------------------|------------------|------------|
| | | | 1Q | 2Q | 3Q | 4Q | 평균 | |
| EIA 2021.05 (2021.03) | WTI | 39.17 | 58.09 (58.53) | 61.89 (60.96) | 59.19 (55.18) | 56.50 (54.50) | 57.24 (57.24) | 56.99 |
| EIA 2021.05 (2021.03) | Brent | 41.69 | 61.12 (61.72) | 65.25 (64.46) | 62.69 (58.98) | 60.00 (58.00) | 62.26 (60.67) | 60.74 |

주: EIA(美 에너지정보청)

자료: EIA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 | 2020년 | 2021년 | 2022 |
|--------------------|---------|---------|---------|
| 세계경제성장률 | -3.3% | 6.0% | 4.4%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 \$40.43 | \$60.12 | \$58.87 |

2. 2021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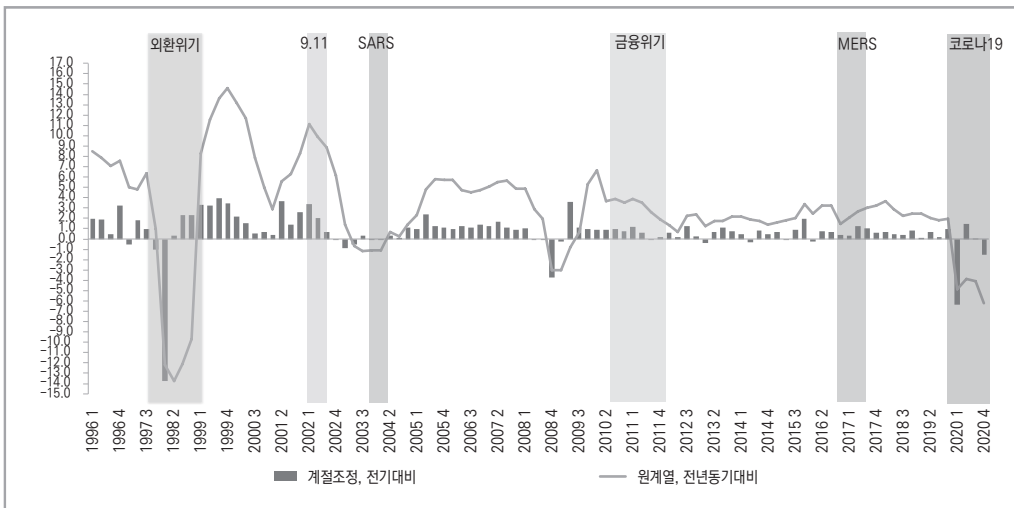
□ 민간소비: 2020년 -5.0%(상반-4.4, 하반-5.5) → 2021년 2.3%(상반1.0, 하반3.6)

- 민간소비는 고용상황의 개선, 방역조치 완화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 느린 백신보급 속도의 영향으로 여타 거시부문에 비해 회복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딜 전망

▷ 주요 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

- 외환위기: -11.6% ('98.1Q~'98.4Q, 평균)
- 사스: -0.7% ('03.2Q)
- 금융위기: -3.0% ('08.4Q~'09.1Q, 평균)
- 메르스: 1.9% ('14.2Q)
- 코로나19: -5.0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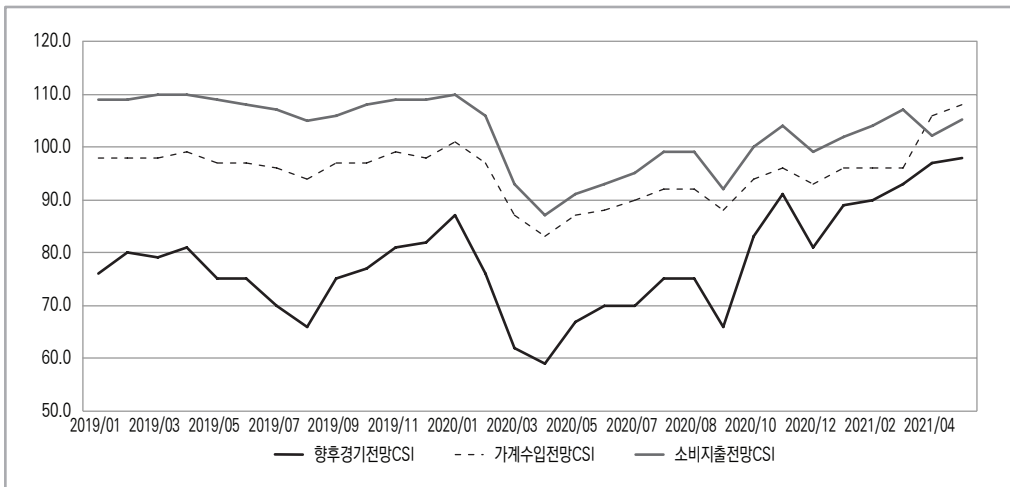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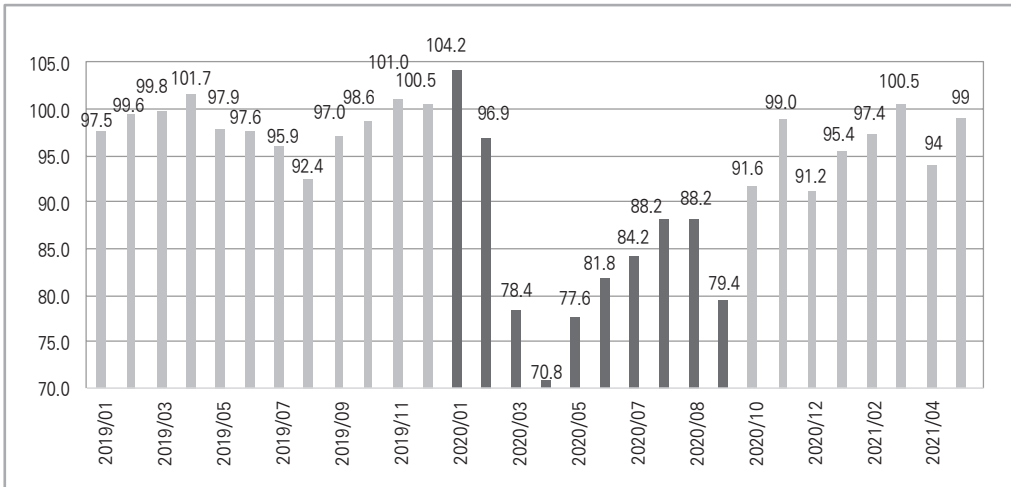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 0.7%(2009.3Q) → 5.3%(2009.4Q) → 6.7%(2010.1Q) → 3.6%(2010.2Q) → 3.9%(2010.3Q)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로 4월중 급락했던 소비심리는 수출호조로 인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점차 개선되는 모습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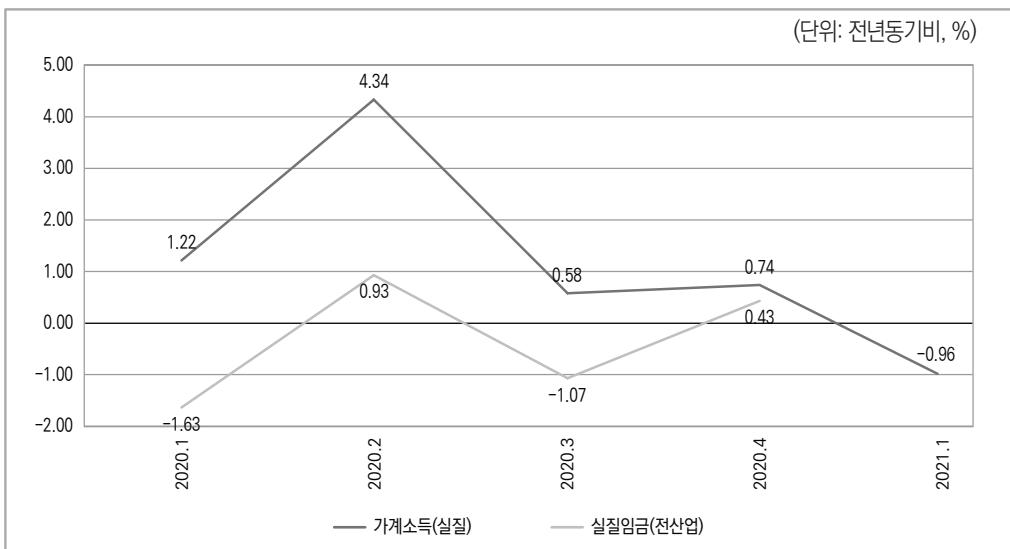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급격히 늘어난 가계신용에 대한 원리금 부담 상승 등 구조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간소비 회복은 2% 초중반의 저조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전망
 - 소득기반 약화: 명목임금상승률 저하, 자영업자 소득 감소, 높은 실업률

- 2020년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및 최저출산율 기록. 기대수명은 83.3명으로 10년전에 비해 3.3년 증가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부채증가²⁾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21년 1/4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76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조 원 가까이 급증하여 매분기 이자비용만 49조 원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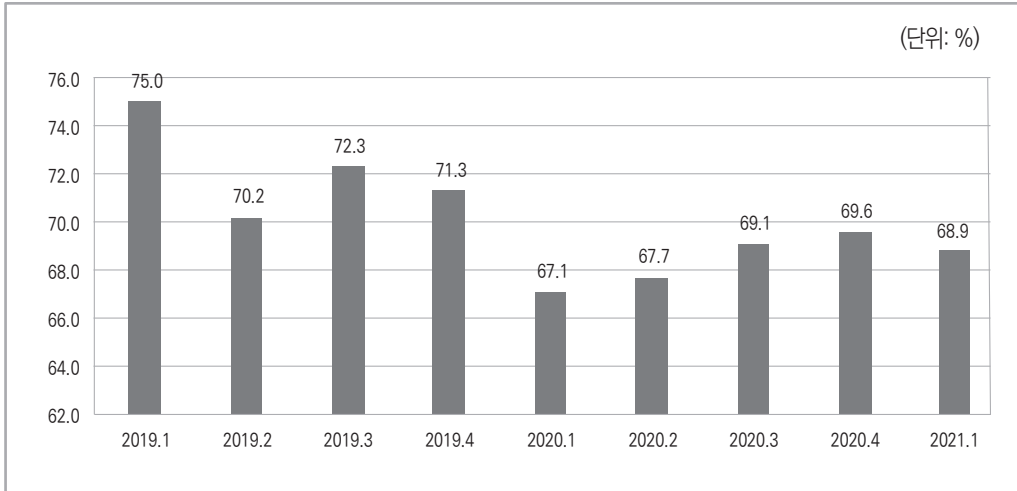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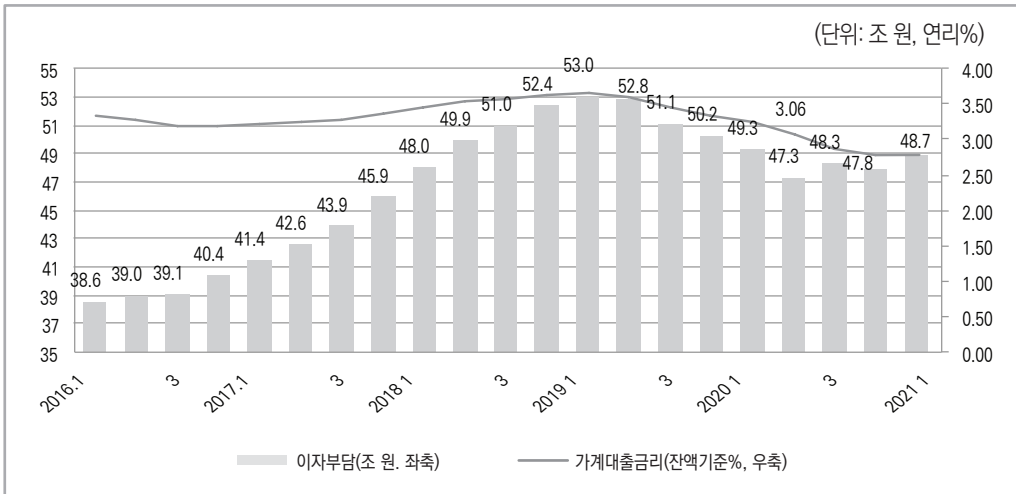
2) 2020년 가구당 평균자산은 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에 그친 반면, 가구당 평균부채는 8,256만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 2020년 6.8%(상반5.6, 하반8.0) → 2021년 9.0% (상반11.5, 하반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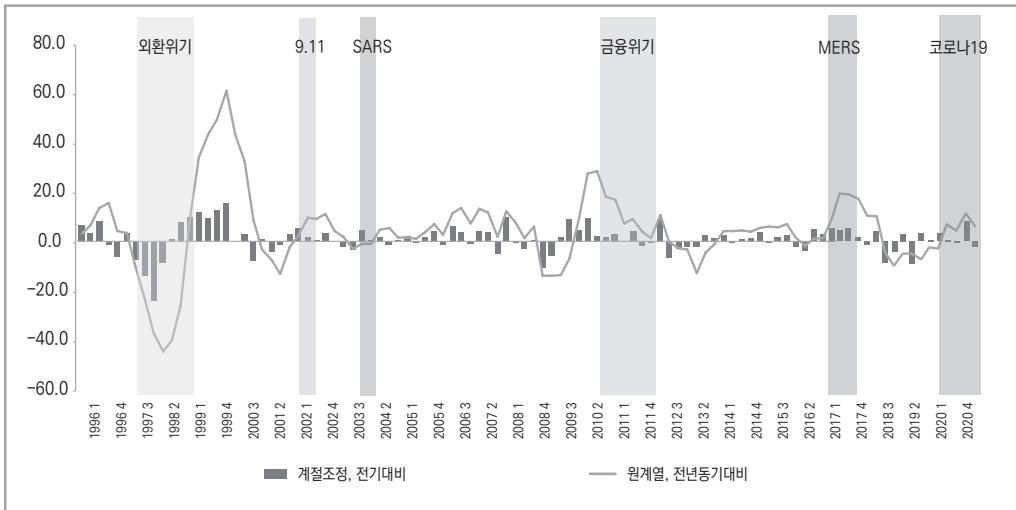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진정국면 지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IT부문에 대한 공격

적 투자와 친환경 분야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

- 외환위기: -38.3%('98.1Q~'98.4Q, 평균)
- 사스: 1.8%('03.2Q)
- 금융위기: -14.4%('08.4Q~'09.1Q, 평균)
- 메르스: 4.5%('14.2Q)
- 코로나19: 6.8(2020년)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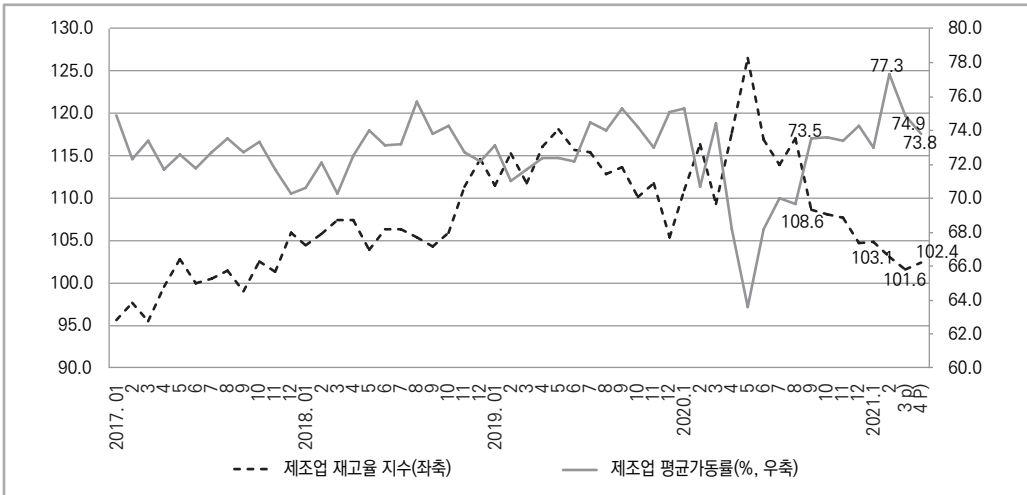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 -7.2%(2009.3Q) → 9.5%(2009.4Q) → 28.4%(2010.1Q) → 29.5%(2010.2Q) → 18.7%(2010.3Q)

-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교역량 증가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고, 제조업 생산증가로 이어지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 갈 전망
- 다만, 누증된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설비투자 여력 감소와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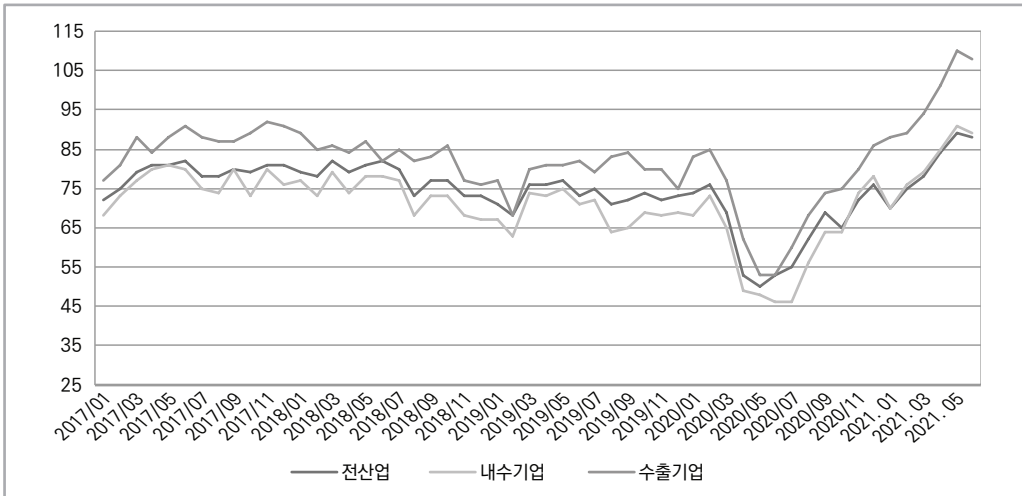
있는 정부의 겹겹이 규제는 설비투자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그림 II-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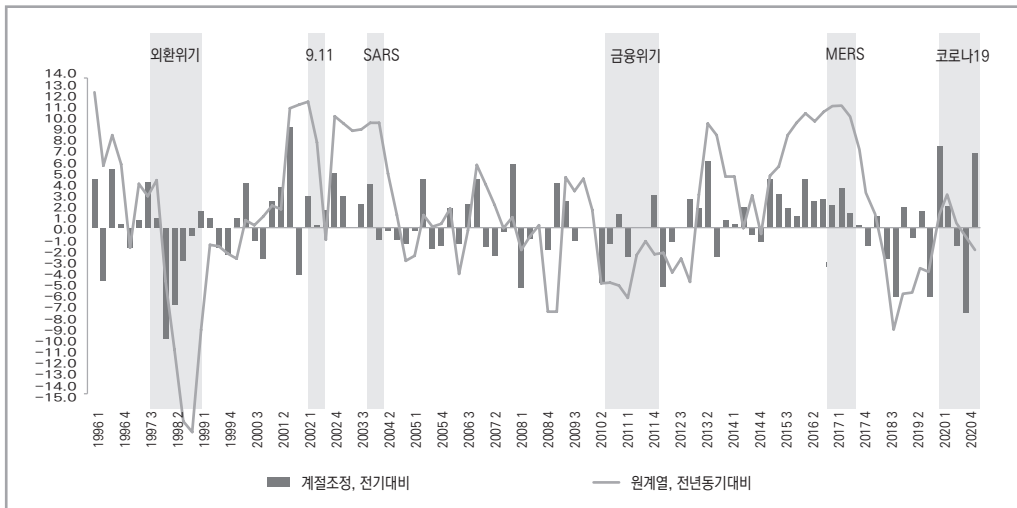
〈그림 II-9〉 업황전망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2020년 -0.1%(상반1.7, 하반-1.8) → 2021년 2.1%(상반-0.7, 하반3.5)
- 2021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영향 및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공업용 건물 건설 증가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 주요 위기별 건설투자 증감률
- 외환위기: -12.5%('98.1Q~'98.4Q, 평균)
 - 사스: 8.4%('03.2Q)
 - 금융위기: -7.3%('08.4Q~'09.1Q, 평균)
 - 메르스: 0.0%('14.2Q)
 - 코로나19: -0.1(2020년)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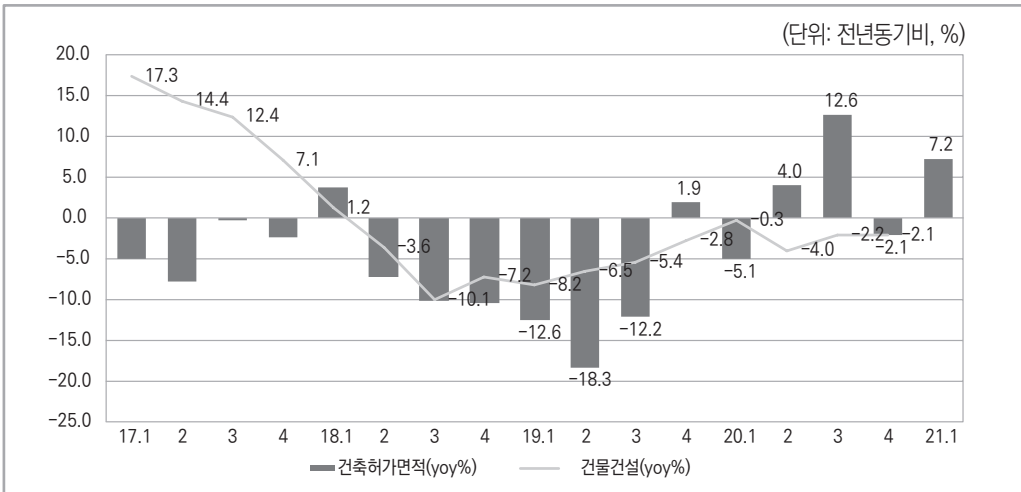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 3.2%(2009.3Q) → 4.3%(2009.4Q) → 1.5%(2010.1Q) →
-4.8%(2010.2Q) → -4.8%(2010.3Q)
- 공공재개발 및 3기 신도시 등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토

목부문의 증가세에 정부의 SOC 확대 계획에 힘입어 수년간 지속되어 온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정부의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과의 합의 난항으로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공공재개발은 2021년중 사업이 일부 개시될 것으로 예상
- 비주거용 건물은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공업용건물 건설증가의 영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토목은 정부의 공공인프라 및 생활형 SOC 확대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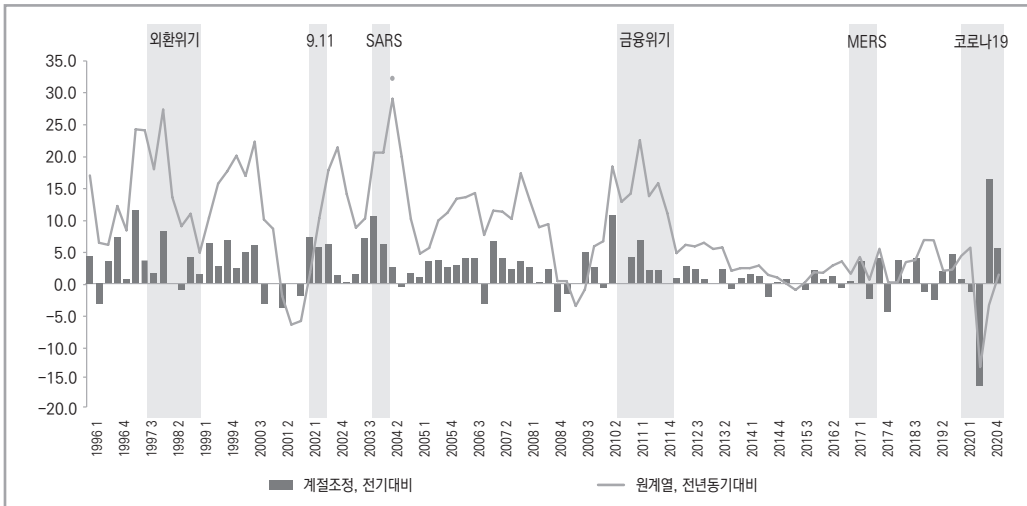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실질수출: 2020년 -2.4%(상반-3.7, 하반-1.1) → 2021년 9.6%(상반13.5, 하반5.8)
- 2021년 수출은 미·중 등 주요국의 예상을 웃도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인 경기회복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
- ▷ 주요 위기별 수출 증감률
 - 외환위기: 15.2%('98.1Q~'98.4Q, 평균)

- 사스: 8.8%('03.2Q)
- 금융위기: -0.9%('08.4Q~'09.3Q, 평균)
- 메르스: 2.8%('14.2Q)
- 코로나19: -2.4(2020년)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 -0.9%(2009.3Q) → 5.8%(2009.4Q) → 6.6%(2010.1Q) → 18.4%(2010.2Q) → 12.8%(2010.3Q) → 14.1%(2010.4Q) → 22.4%(2011.1Q) → 13.7%(2011.2Q) → 15.7%(2011.3Q) → 11.0%(2011.4Q) → 4.8%(2012.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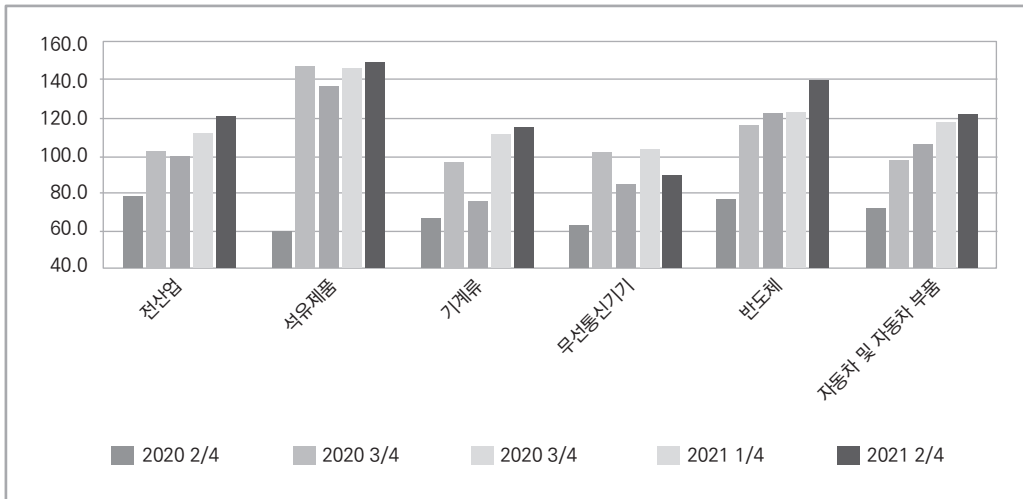
- 글로벌 반도체 초과수요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리한 교역조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D램 가격 지속 상승: \$2.85('20.10~12) → \$3.00('21.1~3) → \$3.80('21.4~5)

* 단가 뿐만 아니라 물량도 증가. 반도체 수출은 11개월 연속 두자리수 상승률 기록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저조한 기록을 보여오던 석유화학, 일반기계 부문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가운데,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 전기차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며 수출이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호조를 보이는 상황
- 다만,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 여부와 美바이든 행정부의 對 중국 무역갈등 가능성이 수출을 제한하는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EBSI)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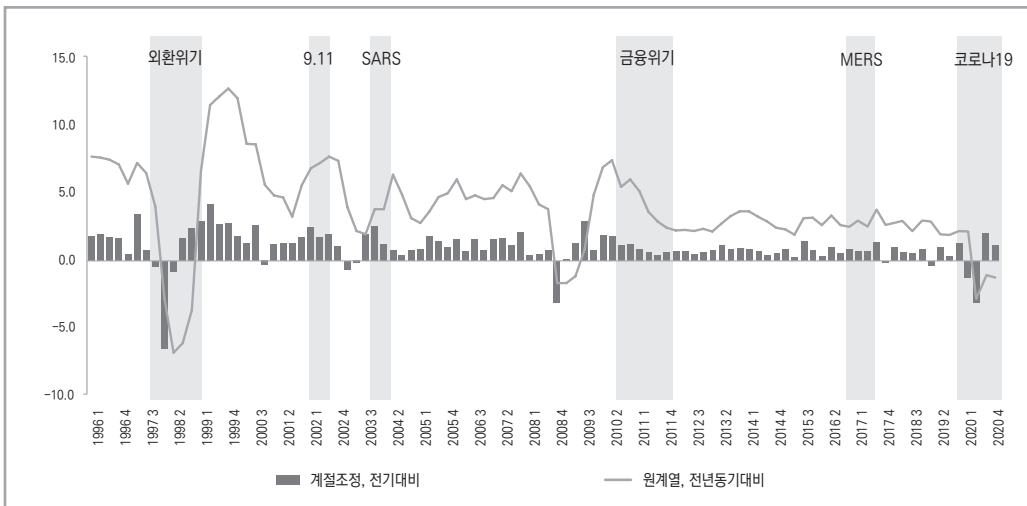
- GDP 성장률: 2020년³⁾ -1.0(상반-0.7, 하반-1.2% → 2021년 3.8%(상반3.7, 하반3.9)
- 202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가 경제부문 전반을 견인하며 3.8% 수준의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3)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GNI, GNI=GDP+해외순수취요소소득)은 31,755달러로 전년대비 1.1% 감소

▷ 주요 위기별 GDP 증감률

- 외환위기: -5.1%('98.1Q~'98.4Q, 평균)
- 사스: 2.3%('03.2Q)
- 금융위기: -1.5%('08.4Q~'09.2Q, 평균)
- 메르스: 3.4%('14.2Q)
- 코로나19: -1.0(2020년)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 금융위기 직후 회복률: 0.9%(2009.3Q) → 5.2%(2009.4Q) → 7.3%(2010.1Q) → 7.9%(2010.2Q) → 5.8%(2010.3Q) → 6.3%(2010.4Q)
- 수출호조 이외에도 작년 낮았던 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금년 높은 수준의 성장률에 복합적으로 작용
- 반기별로는 상반기(전년동기비 3.7%)에 비해 기저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작용하는 하반기(전년동기비 3.9%)의 실적이 더욱 높게 나타날 전망

-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원활한 수습 여부가 2021년도 경기흐름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원활한 백신보급여부,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 가능성 등이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황

★ 통화정책

- 원활한 경기회복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이 그치지 않고 기초적으로 지속될 경우, 연중 금리인상이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
- 또한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기업부채로 인해 금융시장 내에 신용경색 및 신용위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틈타 유동자본이 투기성 자산에 몰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

★ 재정정책

-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8.5% 늘어난 555.8조 원으로 확장적으로 편성(2020년에 비해 32조 원 증액)
-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하반기 재난안전지원금 관련 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가까워질 가능성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자명하지만 무분별한 이전지출 낭발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재정지출 효율화를 면밀히 진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

-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경기 급랭, 주가급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 무엇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원활한 보급여부가 향후 성장경로의 향방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백신보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경기회복은 하반기로 갈수록 미약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
 - 대외적 리스크로는 최대교역국인 美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에 따른 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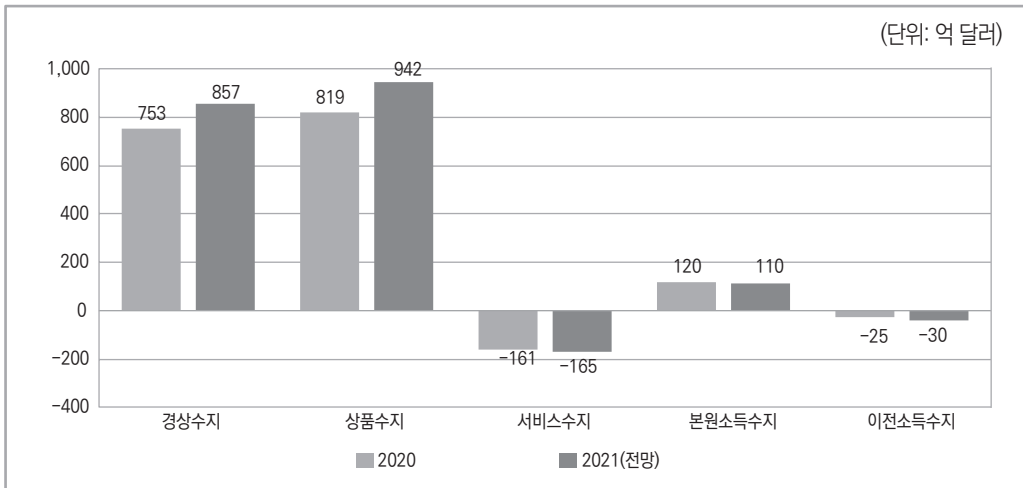
무역갈등 심화, 주요국의 경기반등 실패로 인한 GVC(Global Value Chain) 붕괴, 그리고 美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2020년 753억 달러 흑자(상반191, 하반562) → 2021년 857억 달러 흑자(상반397, 하반460)

-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 역시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동반하여 증가하게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5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지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호조뿐만 아니라 신성장 수출 품목의 선전이 지속되며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전체적으로 적자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수지와 운송수지의 적자는 교류재개 등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국제유가의 강세기조 지속은 수입을 증가시켜 결국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상존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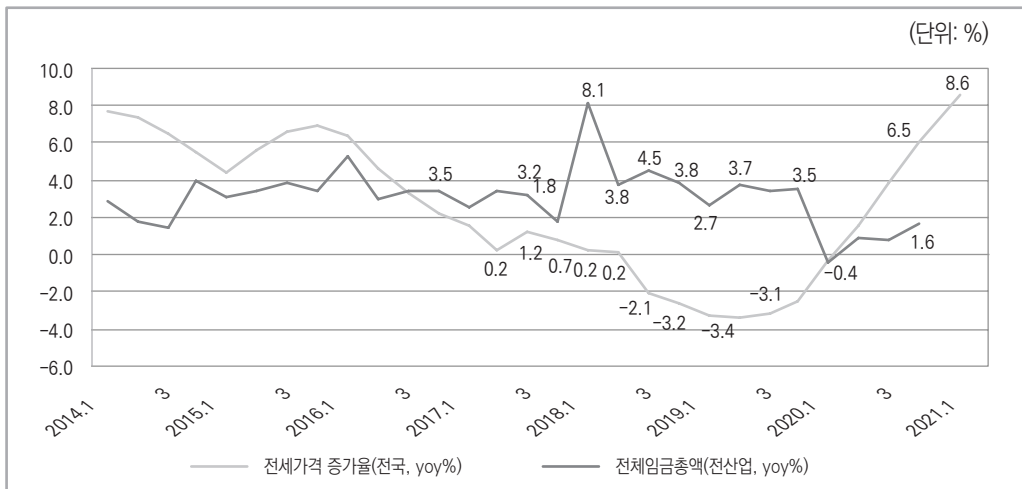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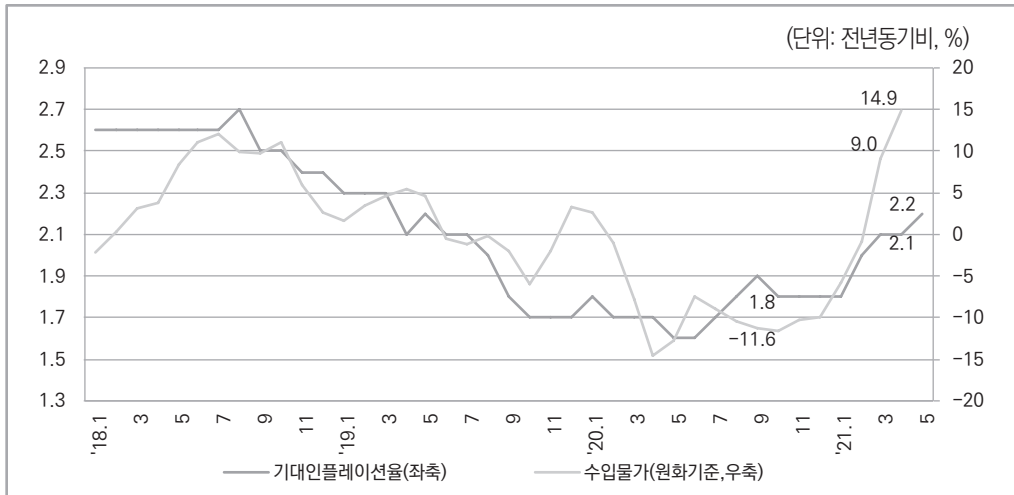
(3) 물가

- 소비자물가: 2020년 0.5%(상반0.6, 하반0.6) → 2021년 1.8%(상반1.8, 하반1.9)
- 물가상승은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1.8%를 기록할 전망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회복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빠른 상승세, 집세 등 거주비 상승,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수준을 견인하는 모습
- 다만, 유가상승 및 농축수산물 가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는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전망
- 또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고령화, 급증한 가계부채 등 소비부진의 구조적 요인들 역시 물가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4) 원/달러 환율 및 주식시장

□ 원/달러 환율: 2020년 1,190원/달러 → 2021년 1,130원/달러

- 美연준의 양적완화 기조 지속에 대한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불식되지 않는 테이퍼링 우려, 美인플레이션 가능성 확대 및 예상치를 웃도는 美경기회복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화는 강세기조를 당분간 지속하게 될 전망
 - 美경기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며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
 - 천문학적 규모의 美경기부양책 및 빠른 백신보급 역시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
 - * 다만,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경기개선 기대,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 완화 등의 영향으로 보합세로 전환
- 다만,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대외건전성 및 외환보유고, 美 재정적자의 과다한 누적 등은 달러화에 대한 약세요인으로 동시에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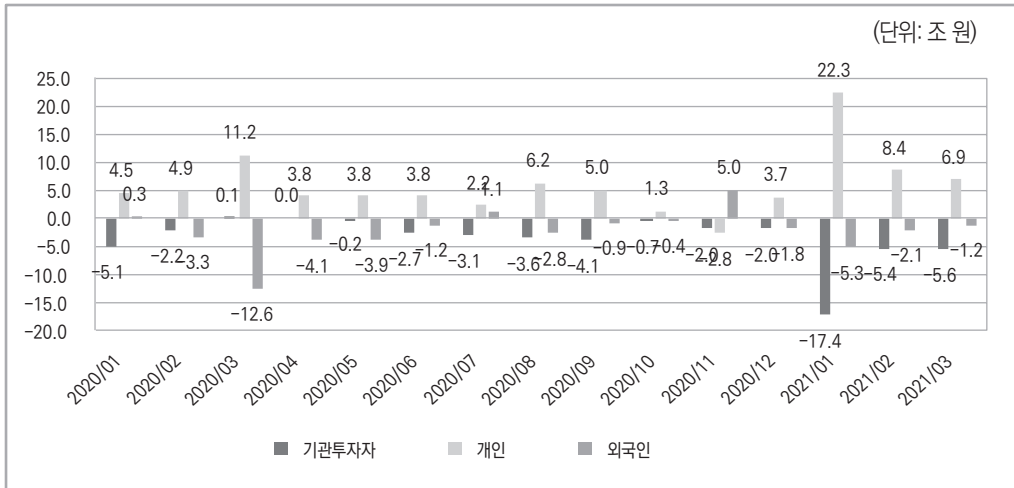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주식시장: 국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세는 감소한 가운데 내국인의 주식투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매수세 지속. 현재 코스피 지수는 최초로 3200선을 돌파
-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며 추가회복에 기여하여 현재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최초로 돌파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습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감은 높아지는 효과가 상충하게 되면서 우리증시는 당분간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그림 II-19〉 투자자별 주식 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표 II-5〉 2021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억달러(국제수지부문))

| | 2019년 | 2020년 | | | 2021년 | | |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GDP | 2.0 | -0.7 | -1.2 | -1.0 | 3.7 | 3.9 | 3.8 |
| 민간소비 | 1.9 | -4.4 | -5.5 | -5.0 | 1.0 | 3.6 | 2.3 |
| 건설투자 | -3.3 | 1.7 | -1.8 | -0.1 | -0.7 | 3.5 | 2.1 |
| 설비투자 | -8.1 | 5.6 | 8.0 | 6.8 | 11.5 | 6.5 | 9.0 |
| 지식생산물투자 | 2.7 | 3.3 | 3.6 | 3.5 | 3.2 | 3.4 | 3.3 |
| 수출(재화+서비스) | 1.7 | -3.7 | -1.1 | -2.4 | 13.5 | 5.8 | 9.6 |
| 수입(재화+서비스) | -0.5 | -3.8 | -4.0 | -3.9 | 6.3 | 5.1 | 5.7 |
| 소비자물가 | 0.4 | 0.6 | 0.6 | 0.5 | 1.8 | 1.9 | 1.8 |
| 경상수지(억 달러) | 600 | 191 | 562 | 753 | 397 | 460 | 857 |
| 상품수지(억 달러) | 768 | 251 | 568 | 819 | 452 | 490 | 942 |
| 서비스수지(억 달러) | -230 | -95 | -66 | -161 | -72 | -93 | -165 |
| 실업률(%) | 3.8 | 4.3 | 3.8 | 4.1 | 4.4 | 3.7 | 4.0 |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판 1쇄 인쇄 / 2021년 6월 28일

1판 1쇄 발행 / 2021년 6월 30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제1982-000003호

(073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대표) 3771-00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한국경제연구원

0732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 : (대표)3771-0001 팩스 : 785-0270

www.keri.org



9 772714 020001
ISSN 2714-0202

12